

## 남편의 가사활동이 부부의 가사분업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주익현\*

### 초 록

가사분업에 주목하는 연구들은 대개의 경우 아내의 가사시간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한 다음, 어떤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따라 아내의 가사시간량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 탐색해 왔다. 하지만 가사활동은 타인에 의해서 수행되기도 하고(예. 가사도우미나 부모) 경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수행이 포기될 수도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가사가 얼마나 평등하게 분업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사분업에 대해서 아내와 남편 모두의 심리적 만족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2014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남편의 가사활동(종류와 시간량)과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분업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남편들이 식사·세탁·청소 활동(core domestic housework)을 할 때 아내들의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아질수록 남편들의 가사분업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남편들이 적극적으로 가사참여를 할 때, 가사분업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대신 아내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남편 본인의 가사분업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남편들이 가사활동을 많이 할수록 가사분업에 대해서 더 만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확인해 보았다는 점에 있다. 방법론적 함의는 가사시간량 대신에 가사분업만족도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는 점에 있다. 마지막으로 남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가사활동을 해야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아지는지 확인해 주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가 될 것이다.

주제어 : 가사분업만족도, 생활시간조사, 가사활동 종류

\*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BK21+사업팀 박사후연구원(miltonlessner@gmail.com)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저출산 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부부 사이의 평등한 가사분업이 주목받고 있다. 출산의 행위자인 여성들이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로 인해서 여성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되었기 때문이다(고영아, 2015 ; 이윤석, 2016 ; 장승희, 2014). 유급노동은 현행 노동법에 의해서 명목상의 보호라도 받아왔지만, 무급가사노동은 부부 당사자들 사이의 사적(private)인 영역의 일로 치부되어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못해왔다. 만약 유급노동시간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서 여성이 무급가사노동을 전담하게 된다면 여성들은 과도한 노동량으로 인해서 여전히 결혼과 출산을 회피하게 될 것이고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남편의 적극적인 가사참여가 필요하다. 남성들이 적극적으로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여성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박미혜, 2007 ; 엄명용·김효순, 2011). 한국의 가사분업 수준을 국제 비교해보면 남성들의 가사시간 총량과 남성의 가사시간 비율(남성의 총가사시간량/부부의 총가사시간량 $\times$ 100%) 모두 OECD 국가 최하위 수준임을 알 수 있다. OECD 보고서(OECD, 2015)에 따르면 한국남성들의 1일 평균 가사시간은 45분으로 OECD 26개 국가 중에서 꼴지를 기록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 남성들은 하루에 186분(1위), 노르웨이 남성들은 184분(2위), 호주 남성들은 172분(3위)동안 가사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가사시간은 한국 227분, 덴마크 243분, 노르웨이 215분, 호주 311분이었는데 남녀의 격차를 계산해 보면 한국은 182분, 덴마크는 57분, 노르웨이는 31분, 호주는 139분이었고 총 가사시간 대비 남성 가사 시간 비율은 한국 16.5%, 덴마크 43.4%, 노르웨이 46.1%, 호주 35.6%였다.

이처럼 여성의 가사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 남녀의 가사분업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은 어떤 조건에서 아내의 무급가사노동시간량이 줄어들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분석(김소영·진미정, 2016 ; 은기수, 2009 ; 주익현, 2015 ; 채로·이기영, 2004 ; 허수연, 2008)해서 연구결과를 축적해온 반면에 부부가 어떤 방식으로 가사분업을 할 때 서로 심리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주목하지 않아왔다. 가사의 양을 줄이는 것이 현실에서의 최우선적인 과제였던 탓이 컸을 것이다. 하지만 무급가사노동시간량만으로는 가사분업이 얼마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가사노동은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대행시키거나 부모나 친지 등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며, 심지어 경우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최소한만 수행하거나 아예 수행을 포기할 수도 있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의 가사분업이 얼마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가사분업에 대한 심리적인 만족도를 살펴보아야 한다.

기존 연구들이 어떤 요인에 의해서 여성의 무급가사노동시간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지를 살펴보았다면 본 연구에서는 어떤 사회학적인 요인에 의해서 부부의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아지거나 줄어드는지를 확인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분석해서 부부의 가사분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본인, 배우자, 가구 수준에서 찾아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 II. 기존 연구 및 연구가설

높은 수준의 가사분업 만족도는 원만한 결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 중 하나이다(Carroll, Badger, and Yang, 2006). 부부들은 가사분업이 공정하다고 생각할 때 결혼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Stevens et al., 2001), 가사분업이 공정할 때 그들의 관계가 안정적이고 적절한 수준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Tang and Curran, 2012). 가사분업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아지면 배우자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약해져서 이혼이나 별거와 같이 결혼생활에 파국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Ruppanner, Branden, and Turunen, 2016). 이를 보면 가사분업만족도는 ‘일반적인 삶의 만족도’ 등의 종속변수들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종속변수임을 알 수 있다.

가사분업에 대한 기존연구들은 주로 가사시간량을 종속변수로 설정해서 분석해왔다. 그런데 하루나 이틀 동안의 가사시간량을 조사하는 방법으로는 부부가 가사분업을 얼마나 평등하게 수행하고 있는지 알기 어렵다. 가사활동이란 가사대행서비스를 사용하거나 또는 주말에 몰아서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가사분업에 대해서 얼마나 심리적으로 만족하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사분업이 얼마나 평등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인지 확인하는 연구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여성의 가사분업만족도를 설명하는데 동원되어져 온 인구사회학적 요인들로는 연령, 교육, 소득, 직업지위, 가족여부 등이 있다. 우선 여성들은 가사시

간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연령 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Henchoz and Wernli, 2013). 이러한 분석 결과는 고연령층 여성들일수록 가사는 여성이 수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수 있다. 고연령층 여성들은 가사노동에 시간을 투입하는 것을 젊은 세대에 비해서 덜 아까워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고연령층에 속하는 여성들은 과거 젊은 시절에 남성들보다 직업 활동을 할 기회가 더 적었던 탓에 현재 저연령층 여성들보다 가사노동을 회피하는 경향이 더 약하기 때문으로 설명된다(Henchoz and Wernli, 2013).

높은 수준의 학력, 소득, 직업지위는 여성으로 하여금 결혼시기를 늦추도록 만든다. 또 낮은 수준의 소득, 교육, 직업지위는 여성들로 하여금 남편의 가사 참여에 대한 기대를 낮춘다.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지위가 낮은 여성들은 자신보다 교육수준, 소득수준, 직업지위가 높은 남성을 가급적 일찍 만나서 결혼해서 가사활동을 기꺼이 더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Lennon and Rosenfield, 1994; DeMaris and Longmore, 1996).

가구원의 수는 가사노동의 양과 강도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대리변수(proxy variable)이다. 부부의 연령과 가사노동시간량 사이에는  $\cap$ 자 형태의 관계가 형성되고, 연령과 가사분업만족도 사이에는 U자 형태의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는 부부의 연령이 중년기에 속할 때 가족구성원의 수가 가장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가구원의 수를 통제할 경우 부부연령 제곱항의 통계적 효과는 사라진다(Henchoz and Wernli, 2013).

인구사회학적 요인들 외에 가사분업만족도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사노동시간량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자들(Gager and Hohmann-Marriott, 2006; Grote et al., 2002; Kluwer et al., 2002; Mikula et al., 2009, 2012)은 가사노동의 시간분배가 공정할 때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해왔다. 또 본인의 가사노동시간보다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이 가사분업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 배우자가 나와 함께 가사에 참여한다는 사실이 부부로 하여금 정서적인 교감과 공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Pyke, 1994; Pyke and Coltrane, 1996; Sanchez and Thomson, 1997).

가사노동시간량 이 외에 가사분업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는 유급노동시간량이 있다. 기존 연구자들은 남편과 아내 중에서 남편의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 남편의 유급노동시간량이 증가할수록 부부 모두 가사분업이 공정하다고 느끼고 불만스러워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Gager and Hohmann-Marriott, 2006; Kluwer et al., 2002).

이상의 기존 연구들을 정리해보면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는 연령, 교육, 소득, 직업지위 수준, 가구원의 수, 유급노동시간량과 무급가사노동시간량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일부 기존 연구자들은 가사노동의 종류를 구분할 것을 제안한 바가 있다(Bittman and Wajcman, 2000; Kan and Gershuny, 2010; Sullivan, 1997; Henchoz, and Wernli, 2013). 이들은 각각의 가사활동은 상당히 이질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녀별로 선호하는 가사의 종류가 따로 있으며, 따라서 가사종류별로 가사분업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구분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식사·세탁·청소 관련 가사노동(core domestic housework)을 매일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반면, 남성들은 쇼핑, 가구 조립, 가사와 관련된 외부활동(세차 및 차량 정비소 방문, 관공서 및 금융기관 방문 등) 등의 비일상적인 가사활동(periphery domestic housework)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an, Sullivan, and Gershuny, 2011). 이렇게 남녀가 주로 수행하는 가사활동의 종류가 다르다면 여성들은 자신들이 주로 수행하는 가사활동에 남성들이 참여할 때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여성들이 주로 수행하는 가사활동에 남성들이 참여해야 여성들의 가사부담이 줄어들고 또 같은 종류의 가사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정서적인 공감대를 더 많이 형성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Baxter and Western, 1998; Henchoz and Wernli, 2013; Auspurg, Lacovou, Nicoletti, 2017). 이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와 가설을 제시하였다.

연구문제1) 어떤 요인들이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를 높이는가?

연구가설1) 남편이 식사·세탁·청소를 할 때 아내의 가사분업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한편 남편의 가사활동이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를 높일 것이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는 반면에 남편 본인의 가사분업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일관된 연구결과가 축적되지 못해온 것으로 보인다. 대개의 경우, 개개인은 본인이 수행하는 가사노동량이 늘어날수록 가사분업에 만족하는 정도가 낮아진다. 게다가 남성들은 결혼 후 결혼 전보다 가부장적이고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가지기 때문에 가사수행을 기피하는 정도도 강해진다(Deutsch, 2001). 따라서 남편의 가사활동은 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 가사노동이 성중립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Craig and Mullan, 2011)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과거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가사 활동에 투입하고 있다(Bianchi et al., 2012). 또,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남성들은 가사를 아내와 평등하게 나눠서 수행하는 경향이 강하며(Lavee and Katz, 2002) 이들은 가사활동의 종류도 가리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Fuwa, 2004; Hook, 2006). 이미숙(1996)과 은기수(2009)에서도 남성의 성역할태도가 평등할수록 남성의 가사참여가 보다 적극적이었다.

이상의 기존연구들은 남성의 가사활동이 남성의 가사분업에 미치는 효과가 남성의 성역할태도에 의해서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박기남(2009)의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가 가사시간에 대해서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고, 해외연구(Bianchi et al., 2000)에서는 여성의 성역할태도가 가사참여에 미치는 효과가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이렇게 일관되지 않은 연구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성역할태도가 아직 인지나 태도의 심리적 단계에 머물 뿐 행위 의도나 행동단계로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최혜지, 2007). 남성의 가사활동이 남성의 가사분업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남성의 성역할태도를 반드시 통제해야 할 것이다.

남성의 가사활동이 남성의 가사분업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인으로는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가 있다. 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은 배우자 특성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Carr et al., 2014; Chong and Mickelson, 2016; Henchoz, and Wernli, 2013). 기존 연구자들은 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가 배우자의 가사분업만족도의 영향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아내가 느끼는 가사분업만족에 대한 기여가 남편의 만족도를 고양시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상의 논의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연구문제2) 어떤 요인들이 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를 높이는가?

연구가설2) 남편이 식사·세탁·청소를 할 때 남편의 가사분업 만족도는 높아질 것이다.

###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본인, 배우자, 가구 수준의 어떤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가사분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4년 생활시간조사 원자료(raw data)를 분석하였다. 2014년 생활시간조사에서는 조사원이 층화표집으로 전국에서 추출된 가구를 방문해서 응답자에게 가사분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를 5점 척도로 물어보았다(1점 : 매우 불만족, 2점 : 불만족, 3점 : 보통, 4점 : 만족, 5점 : 매우 만족). 본 연구에서는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만족 여부(만족 아님 = 매우 불만족+불만족+보통, 만족=만족+매우 만족)로 재코딩하였다(0점 : 만족 아님, 1점 만족). 따라서 분석방법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이다. '만족'이라고 응답할 확률을  $p$ 라고 할 때 설명변수들의 회귀계수는 다음 방정식을 따르게 된다.

$$\ln\left(\frac{p}{1-p}\right) = \beta_0 + \beta_1 X_1 + \dots$$

이 방정식에 투입된 설명변수들의 코딩내역은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연령의 경우에는 만나이로 연속형 변수 형태로 분석에 투입되었다. 교육년수는 연속형 변수이며 졸업자의 경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9년, 고등학교 12년, 2년제 대학 14년, 4년제 대학 16년, 대학원 20년으로 입력하였다. 졸업을 하지 못한 재학, 휴학, 자퇴 등은 초등학교 3년, 중학교 7.5년, 고등학교 10.5년, 2년제 대학 13년, 4년제 대학 14년, 대학원 18년으로 졸업한 학력의 교육년수에 마지막 학력의 중간값을 더하였다. 직업은 범주형 변수로 입력하였다. 전문관리직, 사무판매회계직, 1차산업종사자, 기능조립단순직, 주부학생기타 이상의 다섯 가지 범주를 가지게 되며 사례수가 가장 많은 사무판매회계직을 준거변수로 설정하였다. 유급노동시간량은 연속형 변수이며 단위는 시간(hour)이다. 가사노동은 행위 여부이며 범주형 변수로 입력하였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생활시간조사는 모든 행위의 합이 24시간이기 때문에 행위변수를 연속형으로 분석에 많이 투입할수록 분석결과가 왜곡되며 따라서 행위 여부를 분석에 투입해야 이를 막을 수 있다. 둘째, 가사나 돌봄 노동을 세세분류에 따라 변수화 할 경우 0값이 지나치게 많아서 왜도(skewness)가  $\pm 1$ 을 초과하게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투입변수를 더미화 할 필요가 있었다. 식사·세탁·청소 가사활동(core domestic housework)과 그 외 가사

노동 여부(non-core domestic housework), 돌봄 노동 관련 행위 여부가 0과 1로 각각 코딩되었다. 성역할태도는 4점 척도로 조사되었지만 행위 여부 변수들과 같은 이유로 0과 1로 코딩되었다. 0은 ‘남성은 일, 여성은 집’이라는 질문에 대해서 찬성하는 경우이며 1은 반대하는 경우를 나타낸다. 이상의 변수들은 회귀분석에서 개인변수와 배우자 변수로 투입되었다.

주말여부는 평일은 0, 주말은 1로 코딩되었다. 주말여부는 일반적인 직장인의 경우 평일과 주말의 시간사용 패턴이 현격히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실증 분석단계에서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변수이다. 실제로 시간일지 자료를 분석하는 연구자들은 주말과 평일을 변수로 구분하거나 또는 분석자체를 분리해서 실행하곤 한다(이연숙, 2002 ; 문숙재·윤소영, 2003 ; 유계숙, 2010). 이들 연구에 따르면 주5일 근무를 하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평일에는 남녀 모두 최소한의 가사만 수행하다가 주말에 많은 양의 가사를 몰아서 수행하는 패턴을 보였다.

가구 수준의 변수로는 가구총소득, 아내의 소득기여도, 주말여부, 10세 미만의 자녀 여부, 10대 자녀 여부, 동거 (조)부모 여부가 분석에 투입되었다. 가구총소득은 부부의 개인 소득을 합산한 다음 자연로그를 씌워서 왜도를 보정한 값이다. 아내의 소득기여도는 아내의 소득을 부부총소득으로 나눈 다음 백분율로 나타낸 값이다. 가족구성원은 가사의 총량을 추정해볼 수 있는 대체 변수(proxy variable)의 성격을 띠는 동시에 가사를 도와줄 수 있는 가족구성원의 수를 나타내기도 한다. 해당 가족구성원이 없는 경우에는 0, 있는 경우에는 1로 코딩되었다. 이상의 개인, 배우자, 가구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은 다음 <표1>~<표3>과 같다.

〈표 1〉 연속형 변수의 기초통계(N=14,704)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가구총소득(만원)	368.4	233.7	0.0	1440.0
아내의 소득기여도(%)	22.4	24.3	0.0	100.0
남편의 연령(만 세)	52.3	13.6	17.0	95.0
남편의 교육연한(년)	12.6	3.6	0.0	20.0
남편의 유급노동시간(시간)	4.8	4.0	0.0	18.2
아내의 연령(만 세)	49.2	13.0	19.0	91.0
아내의 교육연한(년)	11.7	3.8	0.0	20.0
아내의 유급노동시간(시간)	2.4	3.4	0.0	15.3



〈표 2〉 범주형 변수의 기초통계(N=14,704)

변수	범주	빈도	퍼센트
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	만족	4,627	62.9
	아님	2,725	37.1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	만족	5,165	70.3
	아님	2,187	29.7
주말 여부	평일	4,422	60.1
	주말	2,930	39.9
10세 미만 자녀 여부	없음	5,348	72.7
	있음	2,004	27.3
10대 자녀 여부	없음	5,556	75.6
	있음	1,796	24.4
(조)부모 여부	없음	6,977	94.9
	있음	375	5.1
남편의 직업	전문관리직	1,156	15.7
	사무판매서비스직	2,225	30.3
	1차산업종사자	577	7.8
	단순조립기능직	2,180	29.7
	주부학생기타(무직포함)	1,214	16.5
	가부장적	3,747	51.0
남편의 성역할태도	양성평등지향	3,605	49.0
	안함	4,480	60.9
남편의 식사·세탁·청소 가사 활동 여부	함	2,872	39.1
	안함	5,350	72.8
남편의 그 외 가사 활동 여부	함	2,002	27.2
	안함	5,886	80.1
남편의 돌봄노동 활동 여부	함	1,466	19.9
	안함	806	11.0
아내의 직업	전문관리직	806	11.0
	사무판매서비스직	1,741	23.7
	1차산업종사자	373	5.1
	단순조립기능직	929	12.6
	주부학생기타(무직포함)	3,503	47.6
	가부장적	2,313	31.5
아내의 성역할태도	양성평등지향	5,039	68.5
	안함	168	2.3
아내의 식사·세탁·청소 가사 활동 여부	함	7,184	97.7
	안함	3,688	50.2
아내의 그 외 가사 활동 여부	함	3,664	49.8
	안함	4,279	58.2
아내의 돌봄노동 활동 여부	함	3,073	41.8
	안함		

〈표 3〉 상관관계(N=14,704)

	1	2	3	4	5	6	7
1. 가구총소득(ln)							
2. 아내의 소득기여도	-.036**						
3. 남편의 연령	-.521***	.119***					
4. 남편의 교육연한	.538***	-.128***	-.519***				
5. 남편의 유급노동시간	.253***	-.148***	-.312***	.106**			
6. 아내의 연령	-.514***	.114***	.970***	-.508**	-.310**		
7. 아내의 교육연한	.588***	-.088***	-.669***	.765**	.178**	-.662**	
8. 아내의 유급노동시간	.148***	.396***	-.029*	-.054**	.295**	-.034**	-.016

\*p &lt; .05, \*\*p &lt; .01, \*\*\*p &lt; .001

## IV. 분석결과

### 1. 해석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의 가사분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들을 탐색하는 것이다. 핵심 설명변수는 남성의 식사·세탁·청소 관련 가사행위 여부이고 결과변수는 남편과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이다. 아래 〈표4〉는 부부의 가사분업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고 핵심설명변수와 통제변수들을 투입한 회귀분석의 결과표이다. 남성과 여성을 분리해서 분석을 했기 때문에 사례 수는 전체 응답자수 14,704명의 절반인 7,352명이다. 모형1은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모형2는 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결과이다. 이 두 모형은 투입된 변수들이 서로의 기울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절편에만 영향을 미친다(fixed effect)고 가정한다.

여성들은 다른 조건이 같다면 남성들이 가사에 많이 참여할수록 가사분업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가설 1은 남편이 식사·청소·세탁 관련 가사활동을 할 때 여성의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아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워진 가설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남성의 식사·세탁·청소 관련 가사행위는 여부의 비표준회귀계수는 .401(p<.001)로 여성의 가사분업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영가설 기각, 연구가설1 채택). 남편이 식사·세탁·청소 등의 가사활동

을 할 경우 아내가 가사분업에 대해 만족할 승산(odds)은 남편이 식사·세탁·청소 등의 가사활동 등의 가사를 하지 않을 경우 아내가 가사분업에 만족할 승산의 1.49배였다. 이를 확률로 환산하면 식사·세탁·청소 등의 가사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는 아내가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이 26.7%이고, 남편이 식사·세탁·청소 등의 가사활동을 할 경우는 아내가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이 34.4%이며 그 차이는 7.7%p였다.

여성의 가사분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한 모형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고한 남편 관련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남편이 돌봄노동여부의 비표준회귀계수는 .209( $p < .05$ )이며, 남편이 돌봄을 할 경우 아내가 가사분업에 만족할 승산은 남편이 돌봄노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만족할 승산의 1.23배였다. 이를 확률로 환산해보면 남편이 돌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아내가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이 28.9%이고, 남편이 돌봄에 참여할 경우 아내가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이 32.9%이며 이 둘 사이의 격차는 3.0%p이다. 남편의 성역할태도의 효과는 비표준회귀계수는 .523이고( $p < .001$ ) 승산비가 1.69이다. 이를 확률로 환산하면 남편이 가부장적일 경우에 아내가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은 25.0%이며, 남편이 양성평등을 지향한다면 아내가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이 34.9%이며 격차는 9.9%p이다. 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을 경우에는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도 높아진다. 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의 비표준회귀계수는 1.044이며( $p < .001$ ) 승산비는 2.84이다. 이를 확률로 환산하면 남편이 가사분업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아내가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이 21.8%이며, 남편이 가사분업에 만족할 경우 아내가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은 42.9%이며 차이는 21.1%p이다.

여성의 가사분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 관련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아내의 성역할태도의 비표준회귀계수는 -.555( $p < .001$ )이며 승산비는 0.57이었다. 확률로 환산할 경우 여성이 가부장적인 태도를 가질 경우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은 37.3%였고, 여성이 양성평등을 지향할 경우 여성이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은 26.5%였다. 이 둘의 격차는 10.8%이다. 여성의 연령의 비표준회귀계수는 -.017( $p < .05$ )이고 승산비는 0.98이다. 이를 확률로 환산해보면 여성의 연령이 가장 낮은 경우에 여성이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은 40.0%이고, 가장 높은 경우에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은 26.2%이며 차이는 13.8%p임을 알 수 있다. 아내의 교육연한이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면, 비표준회귀계수 값이 .032이며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알 수 있다. 아내 연령의 승산비는 1.03으로 이를 확률로 환산해보면 아내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을 경우 아내가 가사분업에 대해 만족할 확

률이 22.9%이고 교육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에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이 34.8%이며 이 둘의 격차는 11.9%p임을 알 수 있다.

여성의 가사분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공통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조사요일이 주말일 경우 비표준회귀계수는  $-.195(p<.01)$ 이며 승산비는 0.82이다. 조사요일이 평일일 때 여성이 가사분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할 확률은 31.2%이고, 조사요일이 주말일 때 여성들이 가사분업에 만족한다고 응답할 확률은 27.6%이고 차이는 3.6%p이다. 여성들은 10세 미만 자녀가 있을 경우와 동거하는 (조)부모가 있을 때 가사분업에 만족할 가능성이 낮아진다. 10세 미만 자녀 여부의 비표준회귀계수는  $-.246(p<.05)$ 이고 승산비는 0.78이었다. 이를 확률로 환산하면 10세 미만 자녀가 없을 때 여성이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이 31.0%이고, 10세 미만 자녀가 있을 때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은 26.6%이고 그 차이는 4.4.%이다. 동거 (조)부모 여부의 비표준회귀계수는  $-.360(p<.01)$ 이고 승산비는 0.70이었다. 이를 확률로 환산하면 동거하는 (조)부모가 없을 때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이 30.0%이고, 동거하는 (조)부모가 있을 경우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이 23.7%이며, 이 둘 사이의 차이는 6.3%p이다.

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우선 남성들의 식사·세탁·청소 가사활동은 남성들의 가사분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영가설 채택, 연구가설2 기각). 반면 그 외 가사활동의 비표준회귀계수는  $.148(p<.05)$ 이고 승산비는 1.16이었다. 이를 확률로 환산해보면 남편들은 식사·세탁·청소 이외의 가사활동을 안할 때 느끼는 가사업만족도는 36.2%이고, 식사·세탁·청소 이외의 가사활동을 할 때 느끼는 가사업만족도는 39.4%이며 이 둘 사이의 격차는 3.2%p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변수들의 효과는 다음과 같다.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양성평등을 지향할 경우 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는 낮아진다. 남편 성역할태도의 비표준회귀계수는  $-.208(p<.001)$ 이며 승산비는 승산비는 0.81이다. 이를 확률로 환산하면 남편이 가부장적일 때는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이 39.3%이고 남편이 양성평등적인 태도를 가질 때 가사분업만족도를 느낄 확률은 34.8%이며 이 둘 사이의 간격은 4.5%p임을 알 수 있다. 직업의 경우 단순조립기능직 종사자들이 사무판매서비스직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각 직업별로 가사분업만족도를 느낄 확률을 살펴보면 전문관리직 39.3%, 사무판매서비스직 38.7%, 1차 산업종사자 35.5%, 단순조립기능직 34.5%, 주부학생기타(무직포함)의 37.0%이다. 사무판매서비스직과 단순조립기능직의 차이는 4.2%p였다. 남편의 교육연한의 비표준회귀계수는  $.032(p<.01)$ 이고, 승산비는 1.03이다. 이를 확률로 환산해보면 남편의 교육수준이 가장 낮을 때 남편이 가사분업에 대해 만족할

확률은 28.7%이고 남편의 교육수준이 가장 높을 때 남편이 가사분업에 대해 만족할 확률은 42.3%이며 이 둘 사이의 격차는 13.6%p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 관련 요인은 아내의 가사분업 만족도뿐이었다. 이 변수의 비표준회귀계수는  $p < .001$  수준에서 1.047이었다. 아내가 가사분업에 대해 만족할 때 남편도 만족할 승산이, 아내가 가사분업에 만족하지 않을 때 남편이 가사분업에 대해 만족할 승산의 2.85배였다. 이를 확률로 환산해보면 아내가 가사분업에 불만이 있을 때 남편이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은 29.7%인 반면에 아내가 가사분업에 만족할 경우에 남편이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이 24.6%p가 증가한 54.4%p임을 알 수 있다.

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 공통 변수들은 가구총소득과 10대 자녀여부이다. 가구총소득의 비표준회귀계수는 1.05( $p < .05$ )이고 승산비는 1.11이었다. 이를 확률로 환산해보면 가구총소득이 최솟값일 경우에 남편이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은 25.1%이며 가구총소득이 최댓값일 때는 40.7%이며 이 둘 사이의 차이는 15.6%p임을 알 수 있다. 10대 자녀가 있을 때 남성들은 가사분업에 불만을 가지는 경향이 있었다. 10대자녀 여부의 비표준회귀계수는  $-0.151$ ( $p < .05$ )이며 승산비는 0.86이었다. 이를 확률로 환산하면 10대 자녀가 없을 때 남편이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은 37.9%이며 10대 자녀가 있을 경우에 남편이 가사분업에 만족할 확률은 34.6%였다. 이 차이는 3.3%p이다.

〈표 4〉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모형1 (dv=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		모형2 (dv=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남편 식사·세탁·청소 가사노동 여부(ref=안함)				
했음	0.401*** (0.060)	1.493	-0.028 (0.057)	.973
남편 그 외 가사노동 여부(ref=안함)				
했음	0.088 (0.065)	1.092	0.148* (0.061)	1.159
남편 돌봄노동 여부(ref=안함)				
했음	0.209* (0.084)	1.233	0.013 (0.079)	1.013
남편 성역할태도(ref=가부장적)				
양성평등 지향	0.523*** (0.057)	1.687	-0.208*** (0.053)	.812

		모형1 (dv=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		모형2 (dv=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남편 가사분업만족도(ref=만족안함)					
	만족	1.044*** (0.055)	2.841		
아내 식사·세탁·청소 가사노동 여부(ref=안함)					
	했음	-0.254 (0.173)	.775	0.125 (0.173)	1.133
아내 그 외 가사노동 여부(ref=안함)					
	했음	-0.087 (0.059)	.916	0.001 (0.055)	1.001
아내 돌봄노동 여부(ref=안함)					
	했음	-0.109 (0.080)	.897	-0.030 (0.074)	.970
아내 성역할태도(ref=가부장적)					
	양성평등 지향	-0.555*** (0.061)	.574	0.064 (0.058)	1.066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ref=만족안함)					
	만족			1.047*** (0.055)	2.849
남편 연령					
		0.006 (0.008)	1.006	-0.004 (0.008)	.996
남편 직업(ref=사무판매팀서비스직)					
	전문관리직	0.002 (0.084)	1.002	0.027 (0.079)	1.027
	1차산업종사자	-0.119 (0.165)	.888	-0.148 (0.148)	.863
	단순조립기능직	0.009 (0.074)	1.009	-0.192** (0.069)	.825
	주부학생기타(무직포함)	-0.076 (0.119)	.927	-0.077 (0.111)	.926
남편 교육연한					
		0.017 (0.013)	1.017	0.032** (0.012)	1.033
남편 유급노동시간량					
		-0.020 (0.010)	.981	-0.007 (0.009)	.993
아내 연령					
		-0.017* (0.009)	.983	0.001 (0.008)	1.001

	모형1 (dv=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		모형2 (dv=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	
	coefficient	odds ratio	coefficient	odds ratio
아내 직업(ref=사무판매서비스직)				
전문관리직	0.174 (0.099)	1.190	0.075 (0.094)	1.078
1차산업종사자	-0.087 (0.198)	.917	0.144 (0.173)	1.155
단순조립기능직	-0.162 (0.101)	.850	0.135 (0.091)	1.145
주부학생기타(무직포함)	0.180 (0.097)	1.198	-0.073 (0.090)	.930
아내 교육연한	0.032* (0.013)	1.033	-0.008 (0.012)	.992
아내 유급노동시간량	-0.005 (0.012)	.995	-0.014 (0.011)	.986
가구총소득(ln)	0.037 (0.048)	1.038	0.105* (0.046)	1.111
아내의 소득기여도	0.000 (0.001)	1.000	-0.001 (0.001)	.999
주말여부(ref=평일)				
주말	-0.195** (0.065)	.823	-0.085 (0.060)	.919
10세 미만 자녀 여부(ref=없음)				
있음	-0.246* (0.100)	.782	0.003 (0.092)	1.003
10대 자녀 여부(ref=없음)				
있음	-0.050 (0.069)	.951	-0.151* (0.064)	.860
동거 (조)부모 여부(ref=없음)				
있음	-0.360** (0.129)	.698	0.138 (0.113)	1.148
Constant	-1.158** (0.438)		-1.456*** (0.417)	
Observations	7,352		7,352	

\*p &lt; .05, \*\*p &lt; .01, \*\*\*p &lt; .001

다음 <표5>는 분석결과를 요약해서 남녀의 가사분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비교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우선 개인의 성역할태도는 남녀에 상관없이 가사분업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성이 가사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현실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이 양성평등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가사를 남녀가 평등하게 나눠서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사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가사분업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자신은 현실에서 가사노동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있지만 본인이 양성평등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자신이 가사를 더 해야 하고 자신의 아내가 가사를 덜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사분업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본인의 교육수준 또한 남녀 모두에게 가사분업만족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교육수준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상태에서 본인의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나타난 사실은 남편과 아내 둘 중에서 교육수준이 더 높은 쪽인 가사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자유롭기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교육수준이 높은 쪽이 더 높은 소득과 직장에서의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낮은 쪽이 가사를 더 분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본인의 연령은 아내한테서만 가사분업만족도를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가 가사를 전담하다시피하고 있는 현실조건을 감안해보자면 아내의 연령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으로 인해 가구원이 늘어나면서 가사부담이 늘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자녀에 돌봄 노동 또한 아내가 전담시피하고 있다는 점과 자녀들이 출가한 이후에는 남편에 대한 돌봄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여성의 연령과 여성의 가사분담만족도 사이에서 부정적(negative)인 관계가 형성됨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남편한테서만 효과가 있는 개인변수로는 식사, 세탁, 청소 외 가사활동과 직업이 있다. 우선 남성의 경우 식사, 세탁, 청소 외 가사활동이 본인의 가사분업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한국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에서 식사, 세탁, 청소 외 가사활동 외 활동이라 함은 주거 관리, 차량 및 가정용품 관리, 쇼핑, 가계부 정리, 금융기관 및 관공서 이용 등을 의미한다. 이 중에서 주거 관리나 차량 및 가정용품 관리는 남성들이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할 수 있는 활동인 동시에 비정기적으로 가끔 수행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수행에 대한 부담이 적고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활동은 남성의 가사분업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다. 쇼핑의 경우에는 가사활동으로서의 속성을 가지는 동시에 여가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남성



의 경우는 아내와 동반해서 쇼핑활동을 하면서 아내의 쇼핑을 보조해주는 역할을 맡아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한테 있어서 쇼핑은 여가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더 크고 이로 인해서 가사분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 있다.

한편 직업의 경우 준거집단이었던 사무직과 비교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직업집단은 단순조립직에 종사하는 이들이었다. 단순조립직에 종사하는 이들은 다른 직업집단과 비교해서 가사분업만족도가 가장 낮은 직업집단이었다. 소득수준과 유급노동시간량을 통제한 상황에서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아마도 남성들이 종사하는 단순조립직은 육체적인 노동의 강도가 타 직업집단종사자들보다 높아서 가사에 부담을 느껴 가사분업만족도가 낮을 수 있다.

배우자의 특성 중에서 개인의 가사분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남녀 공통으로 배우자의 가사분업만족도가 있다. 가사노동은 나와 배우자 중에서 한명이 많이 수행할수록 다른 한명은 적게 수행하게 되는 활동이다. 따라서 최대한 공평하고 공정하게 가사분업이 이루어져서 상대의 만족도가 높을 때 나의 만족도도 높을 수 있다. 만약 한 명의 만족도만 높고 다른 한 명의 만족도가 낮다면, 배우자의 낮은 만족도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사노동 분업은 재조정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배우자의 가사분업만족도와 나의 가사분업만족도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긍정적(positive)인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

아내의 경우 남편의 핵심가사노동(core domestic housework)과 돌봄노동, 남편의 성역할태도가 양성평등을 추구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 남편의 식사, 세탁, 청소와 같은 핵심가사활동과 돌봄노동은 아내의 노동을 실질적으로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를 낮춰줄 수 있다. 또한 남편이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면 가사수행에 있어서의 아내의 대한 정서적 지원의 정도도 더 높을 것이기에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를 낮춰줄 수 있다.

가구 수준의 변수 중에서는 남녀의 가사분업만족도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여성의 경우에는 조사요일이 주말일 때 가사분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편과 다른 가구원들이 주말에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활동을 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가사 및 돌봄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10세 미만의 자녀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어머니가 더 잘할 수 있는 돌봄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수행하는 탓에 10세 미만 자녀 여부가 여성의 가사분업만족도를 낮추는 것을 볼 수

있다. 조부모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가사도우미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도 있지만 동거조부모의 경우는 가사량을 늘리기 때문에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를 낮춘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남편의 경우 가구총소득 수준이 높으면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소득기여도를 통제한 상황에서 가구총소득 수준이 높을 때 남성만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남성의 가사노동은 소득으로 대체할 수 있는 노동이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주로 남성들이 담당해오던 가전제품의 수리와 같은 활동은 유료서비스를 통해 해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0대 자녀의 유무가 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를 낮추는 이유는 10대 자녀의 경우에는 아버지의 돌봄이 요구되기 때문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외벌이 가정에서 어머니가 주부의 역할을 맡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등하교를 동시간대에 출퇴근하는 아버지가 돕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다.

<표5> 가사분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종속변수 독립변수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	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
본인	아내의 양성평등 여부(-) 아내의 교육수준(+) 아내의 연령(-)	남편의 양성평등 여부(-) 남편의 교육수준(+)  남편의 식사, 세탁, 청소 외 가사노동(+) 남편의 직업, 사무직과 비교해서 단순조립직(-)
배우자	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 남편의 식사, 세탁, 청소 가사노동(+) 남편의 돌봄노동(+) 남편의 양성평등 여부(+)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
공동	주말(-) 10세 미만 자녀 여부(-) 동거 조부모 여부(-)	  가구총소득(+) 10대 자녀 여부(-)

## 2. 논의

본 연구의 목적은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응답자 본인과 배우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시간사용이 가사분업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다. 결과변수는 부부의 가사분업만족도이며 핵심 설명 변수는 남성의 가사시

간이다. 이 때 가사의 종류별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사의 종류를 기존연구들에 근거해서 구분하였다(Bittman and Wajcman, 2000; Kan and Gershuny, 2010; Sullivan, 1997; Henchoz and Wernli, 2013).

연구가설 1은 남성이 식사·세탁·청소 관련 가사를 할 때 여성의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설정된 것으로 분석결과 여성들은 배우자가 식사·세탁·청소 관련 행위(core domestic work)를 할 때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여성들이 매일 하는 식사·세탁·청소 관련 가사활동에 남성들이 참여하면 여성의 가사부담이 실질적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남편과 아내가 같은 가사활동을 하게 되면 정서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더 많이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반면에 식사·세탁·청소 관련 가사 이외의 가사활동들(2014년 한국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가사활동을 식사, 세탁, 청소, 주거 관리, 차량 및 가정용품 관리, 쇼핑, 가계부 정리, 금융기관 및 관공서 이용으로 구분됨)은 여성들이 매일 하지 않아도 되는 종류의 일들이다. 이런 종류의 가사활동을 남성이 한다고 해서 여성의 가사부담은 줄어들지 않으며 그래서 여성의 가사분업만족도는 이런 종류의 남성 가사활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편이 가사활동을 할수록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결과이지만 남편의 가사활동이 증가할수록 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일관된 분석 결과가 없었던 부분이었다. 일반적으로는 가사를 많이 수행하는 개인은 가사분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만약 남성들이 가사를 많이 수행할수록 본인들의 가사분업만족도가 낮아진다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가사수행을 요구하기 힘들어질 것이다. 분석결과 남편의 식사·세탁·청소 가사활동은 남편 본인의 가사분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그 외 가사활동은 본인의 가사분업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나아가서 남편의 식사·세탁·청소 가사활동은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를 증가시키며, 이렇게 증가된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는 남편의 가사분업만족도를 간접적으로 증가시킨다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아내의 만족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이 남편의 만족도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본문에 제시하지 않았지만 경로분석을 통해 연구가설2는 간접효과가 있음이 확인됨). 이상의 분석결과를 남편들이 가사를 수행해서 아내의 가사분업만족도를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사분업만족도도 증가시킬 수 있는 이론적 메커니즘을 보여준다. 이는 실천적 함의 측면에서 남성들의 가사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근거라는 점에서도 가치가 있어 보인다.

## V. 연구요약 및 함의

무급가사노동시간량 자체는 가사대행서비스나 수행포기를 통해서 줄어 들 수 있지만 가사분업만족도는 그렇지 않다. 일·가정 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부의 무급가사노동시간량 자체를 살피기보다는 가사분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어떤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무급가사노동시간량이 동일하다고 해서 남편과 아내가 모두 가사분업에 만족할 수는 없을 것이다. 가사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가사에 대한 입장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들(Bittman and Wajcman, 2000; Kan and Gershuny, 2010; Sullivan, 1997; Henchoz, and Wernli, 2013)에서 가사활동은 식사·세탁·청소 등 전통적으로 여성에 의해서 일상적으로 수행되어 오던 핵심가사활동(core domestic work)과 식사·세탁·청소 이 외의 활동인 주변가사활동(non-core domestic work)으로 구분되었다. 2014년 한국 생활시간조사에서 주변가사활동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주거 관리, 차량 및 가정용품 관리, 쇼핑, 가계부 정리, 금융기관 및 관공서 이용 등이 있다.

아내들은 남편이 식사·세탁·청소 가사활동을 할 때 가사분업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이 가사활동들이 여성이 평소에 많이 수행하는 가사활동이다. 여성들은 남성들이 이러한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의 가사부담이 덜어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성의 가사분업만족도는 본인이 가사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 보다는 남편이 얼마나 가사활동에 참여하는지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 사실은 실증연구에서 남편 관련 변수의 효과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방법론적 함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종속변수를 가사시간이 아니라 심리적인 측면을 반영해주는 가사분업만족도로 설정하고 배우자의 효과를 살펴보고, 가사의 종류, 남편의 행위와 성역할태도가 부부의 가사분업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2014년 이전의 생활시간조사에서는 가사분업만족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에 시계열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못한 점과 부부의 가사분업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합으로 이뤄지는지 등을 살피지 못한 것이 본 연구의 한계이며 이는 후속 연구를 통해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고영아(2015). “한국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여성의 권리”. 아세아여성법학, 제 18권, 177-232.
- 김소영·진미정(2016).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2004년-2014년 생활시간조사자료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4권 3호, 65-84.
- 김은정(2013). “미취학자녀를 둔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정책 인지도와 이용의향 : 시간지원정책과 서비스지원정책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4권 2호, 617-642.
- 문숙재·윤소영(2003). “맞벌이 주말부부의 생활시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2호, 213-220.
- 문은영·서영주·최나리(2011). 서울시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활성화 방안 서울여성가족재단
- 박기남(2009).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을 위한 시간 갈등 연구-연령계층별, 성역할 태도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5권 2호, 37-71.
- 박미혜(2007). “우리나라 저출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사회복지지원학회지, 제2권 2호, 55-67.
- 엄명용·김효순(2011). “미혼 남녀의 향후 일·가정 양립 방안, 부부 성역할 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견해 간 관계 탐색 연구”. 한국인구학, 제34권 3호, 179-209.
- 유계숙(2010). “맞벌이부부의 가사분담이 부인의 일·가족 전이와 결혼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여성연구 제49권 1호, 41-69.
- 은기수(2009).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분업”. 한국인구학, 제32권 3호, 145-171.
- 이미숙(1996). “맞벌이부부의 성역할태도와 성역할정체감이 가사분담과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연구논집, 제16권 1호, 153-173.
- 이연숙(2002). “주휴무제에 따른 기혼남녀의 주말 생활시간구조와 여가시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0권 4호, 165-177.
- 이윤석(2016). “저출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결혼과 육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 위기관리논집, 제12권 6호, 115-124.
- 장승희(2014). “한국의 저출산 요인과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경영연구, 제1권 2호, 1-22.
- 주익현(2015). “맞벌이 여성의 소득기여도가 가사 시간량에 미치는 효과: 2004년, 2009년, 2014년 시계열적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과학논집, 제46권 2호, 49-68.

- 채로·이기영(2004). “맞벌이부부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제22권 5호, 265-281.
- 최혜지(2007). “기혼 취업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시간부족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문화*, 제19권 4호, 75-102.
- 허수연(2008). “맞벌이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제24권 3호, 177-210.
- Adams, S.(1964). Toward an understanding of inequity.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422-436.
- Akerlof, G., & Kranton, R.(2000). “Economics and ident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 No. 3, 715-753
- Auspurg, K., Iacovou, M., & Nicoletti, C.(2017). “Housework share between partners: Experimental evidence on gender-specific preferences”. *Social Science Research*. 118-139.
- Baxter, J, & Western, M.(1998). “Satisfaction with housework : Examining the paradox”. *Sociology* 32, No. 1, 101-120.
- Becker, G.(1965). A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Economic Journal*, 75, 493-517.
- \_\_\_\_\_ (1981). *A Treatise On The Family*, Cambridge : Harvard University Press.
- Bianchi, S., Milkie, M., Sayer, L., & Robinson, J.(2000). Is anyone doing the housework? Trends in the gender division of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9, 191-228.
- Bianchi, S., Sayer, L., Milkie, M., & Robinson, J.(2012). Housework : Who did, does, or will do it, and how much does it matter? *Social Forces*, 91, 55-63.
- Bittman, M., & Wajcman, J.(2000). The rush hour : The character of leisure time and gender equity, *Social Forces*. 79, No.1, 165-89.
- Carr, D., Freedman, V., Cornman, J., & Schwarz, N.(2014). Happy Marriage, Happy Life? Marital Quality and Subjective Well-being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 No. 5, 930-948.
- Carroll, J., Badger, S. and Yang, C.(2006). The ability to negotiate or the ability to love? Evaluating the developmental domains of marital competence. *Journal of Family Issues*, 27, 1001-1032.

- Chong, A. and Mickelson, K.(2016). Perceived Fairnes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During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The Mediating Role of Spousal Support. *Journal of Family Issues*, 37. No. 1, 3-28.
- Coltrane, S.(2000). Research on household labor : Modeling and measuring the social embeddedness of routine family 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 1208-1233.
- Craig, L. and Mullan, K.(2011). How mothers and fathers share childcare : A cross-national time-use comparis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 834-861.
- DeMaris, A, Monica, L.(1996). Ideology, power, & equity : Testing competing explanations for the perception of fairness in household labor, *Social Forces*, 74, No. 3, 1043-1071.
- DeMaris, A.(2007). The role of relationship inequity in marital disrup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4, 177-195.
- DeMaris, A.(2010). "The 20-year trajectory of marital quality in enduring marriages : Does equity matter?"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7, 440-471.
- Deutsch, F.(2001). Equally shared parent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0, 25-28.
- Frisco, M. and Williams, K.(2003). Perceived housework equity, marital happiness, and divorce in dual-earner households. *Journal of Family Issues*, 24, 51-73.
- Fuwa, Makiko(2004). "Macro-level Gender Inequality and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22 Countr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9, No. 6, 751-767.
- Gager, C. and Hohmann-Marriott, B.(2006). Distributive justice in the household : A comparison of alternative theoretical models. *Marriage & Family Review*, 40, 5-42.
- Gronau, R.(1977). Leisure, Home Production and Work : the Theory of the Allocation of Time Revisit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5, No. 5, 1099-1123.
- Grote, N., Naylor, K. and Clark, M.(2002). Perceiving the division of family work to be unfair : Do social comparisons, enjoyment, and competence matter?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6, 510-522.

- Henchoz, C, & Wernli, B.(2013). Satisfaction with the Division of Household Tasks in Switzerland : A Longitudinal Approach *Population* 68, No. 4, 533-556.
- Hook, J.(2006). "Care in Context : Men's Unpaid Work in 20 Countries, 1965-2003"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1, No. 4, 639-660.
- Ishii-Kuntz, M. and Coltrane, S.(1992). Predicting the sharing of labor : Are parenting and housework distinct? *Sociological Perspectives*, 35, 629-647.
- Joyner, K.(2009). Justice and the fate of married and cohabiting couple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2, 61-76.
- Kan, Y., & Gershuny, J.(2010). "Gender segregation and bargaining in domestic labour : Evidence from longitudinal time-use data". *Gender inequalities in the 21st century : New barriers and continuing constraints*, 153-173.
- Kluwer, E., José, H. and Vliert, E.(2002). The division of labor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 A justice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930-943.
- Lavee, Y., & Katz, R.(2002). Division of Labor, Perceived Fairness, and Marital Quality : The Effect of Gender Ideolog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No. 1, 27-39.
- Leenon, M., Sara, R.(1994). Relative fairness and the division of housework : The importance of option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 No. 2, 506-531.
- Mikula, G., Schoebi, D., Jagoditsch, S. & Macher, S.(2009). Roots and correlates of perceived injustice in the division of family work. *Personal Relationships*, 16, 553-574.
- Mikula, G., Riederer, B., & Bodi, O.(2012). Perceived justice in the division of domestic labor : Actor and partner effects. *Personal Relationships*, 19, 680-695.
- Milkie, M., Bianchi, S., Mattingly, M., & Robinson, J.(2002). Gendered division of childrearing : Ideals, realities, and the relationship to parental well-being. *Sex Roles*, 47, 21-38.



- OECD(2015). *OECD gender, Balancing paid work, unpaid work and leisure*.
- Perry-Jenkins, M., & Wadsworth, S.(2017). Work and Family Research and Theory : Review and Analysis From an Ecologic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Theory & Review*, 9, 219-237.
- Pyke, K.(1994). Women's employment as a gift or burden? Marital power across marriage, divorce, and remarriage, *Gender & Society*, 8, No. 1, 73-91
- Pyke, K. and Scott, C.(1996). Entitlement , obligation, and gratitude in family work, *Journal of Family Issues*, 17, No, 1, 60-82.
- Ruppanner, L., Brandén, M., & Turunen, J.(2017). Does unequal housework lead to divorce? Evidence from Sweden. *Sociology*, 1-20.
- Sanchez L., Elizabeth, T.(1997). Becoming mothers and fathers. Parenthood,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Gender & Society*, Vo. 11, No. 6, 747-772
- Schor, J(1991). *The overworked American*. New York, NY : Basic Books.
- Schultz, T.(1974). *Economics of the Family : Marriage, Children and Human Capital*,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tevens, D., Kiger, G., & Riley, P.(2001). Working hard and hardly working : Domestic labor and marital satisfaction among dual-earner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3, 514-526.
- Sullivan, O.(1997). "Time waits for no (wo) man : An investigation of the gendered experience of domestic time". *Sociology*. 31 No. 2, 221-239.
- Tang, C., & Curran, M.(2012). Marital commitment and perceptions of fairness in household chores. *Journal of Family Issues*, 34, 1598-1622.
- Thompson, L.(1991). Family work : Women's sense of fairness. *Journal of Family*, 12, 181-196.
- West, C., Zimmerman, H.(1987). Doing gender, *Gender & Society*, 1, No. 2, 125-151.

Abstract

**The effects of husbands' doing housework  
on the couples' satisfaction  
about division of housework**

Ik Hyun, Joo\*

For work-life balance, we need to do housework equally between husband and wife. Then many researchers study on amounts of time doing housework. However amounts of time doing housework could not reflect how equally couples do housework because they can use housekeeping services. In order to confirm degree of division of housework, we should verify degree of satisfaction about division of housework. We could achieve work-life balance after researching what factors affect satisfaction about division of house. I focus on kinds of housework which husbands do. According the analysis results, wives could satisfy when their spouse do cooking, laundry, cleaning. Husband might satisfy to do cooking, laundry or cleaning because those make their wives be satisfied. These results show that the importance of analyzing spouses' factors and psychological dependent variables.

**Keywords :** satisfaction about division of housework, spouses' effects, gender role attitudes, time use survey, kinds of housework

---

\* Sungkyunkwan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ology Postdoctoral Researcher